

창 12:1-9 이메일 체크하다 저는, 가끔 스팸도 훑어봅니다. 제가 미처 등록 못해 스팸으로 처리된, 교우님 메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스팸중에 단골로 “수백만불 상속받았는데, 당신 은행 어카운트 알려주면 백만불 주겠다”는 메일이 옵니다. 사기가 분명해서, 곧장 지워버립니다. 너무 엄청나서, 사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엔 저같이 의심많은 사람이 믿기에는 너무 엄청난 약속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브람이 그런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참 궁금합니다. 성경은 그런 엄청난 약속을 들은 아브람이, 어떤 말 했는지, 그 약속을 분명 아내에게도 말했을텐데, 그 말도 없습니다. 그저 약속을 듣고, 아브람은 떠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약속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창 12:1-9 함께 읽겠습니다.

1.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2.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4.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칠십오 세였더라
5.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래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6.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 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7.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
8. 거기서 벧엘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벧엘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 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9.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기도)

창세기 12 장 사건은 인류의 재창조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한 민족을 새로 만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1 장 바벨성 사건까지를 배경으로 해서 읽지 않으면, 12:1

부터 아브람이 받은 약속이, 얼마나 엄청난지 잘 모릅니다. 11:2 “시날평지를 만나 거기 거주하니라.” 고향 친족을 떠나 유랑하느라 땅 한평 없는 아브람에게, 12:7 “이 땅을 네게 주리라.” 그런데 그 땅은 12:6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차지한 남의 땅입니다. 11:30 “사래는 잉태치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런데 곧바로 아브람에게 12:2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축복의 가장 기본 요소인 땅과 자손을 약속받지만, 그 약속이 이뤄질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11:4 바벨 사람들이 “우리 이름을 내자” 했는데, 아브람에게 12:2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아무리 봐도 아브람이 받은 약속이 다 이뤄질 걸로, 저절로 믿어져서 아브람이 믿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실제 그 약속이 이뤄져 아브람이 그 축복을 맛보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장장 25 년 이상을 기다렸다 겨우, 아내 사래는 아브람 품에 이삭을 안깁니다. 그러나 큰 민족을 이루겠단 약속, 가나안 땅을 주겠단 약속,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단 약속은, 아브람 죽을 때도 못 봅니다. 죽고 330 년후 출애굽 때, 아브람의 자손은 큰 민족을 이룹니다. 출애굽 40 년후, 가나안 땅을 아브람 자손이 차지합니다. 그로부터 1400 년후 아브람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일로, 아브람은 복의 근원이 됩니다.

스데반가 집사가 순교 직전 행 7:2 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브람이 아버지 데라를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이미 아브람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자, 그때 비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을 향합니다. 이때 아브람이 무슨 생각했는지 성경에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아브람은 그저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아브람은 떠난 게 다입니다. 천지 창조도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모든 게 말씀대로 됩니다. 재창조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됩니다.

사실 모세 오경 전체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받은, 아브람의 약속이 이뤄진 과정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약속들이 이뤄지는 길에는, 아주 본질적인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아이 못낳는 아내와 늙은 남편이 어떻게 자손을 볼 수 있습니까? 강대한 족속들이 차지한 땅을, 어떻게 몇 안되는 떠돌이가 차지합니까? 인간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장애물은 넘을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로막을 장애물은 없습니다.

약속이 클수록 우리 믿음에 요구되는 것도 많아집니다. 큰 약속은 큰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아브람이 처음부터 그런 큰 믿음을 가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그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좀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길 아닙니까?” 거듭해 아브람이 보인 행동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종이 주인 대를 잇기도 하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다 아내의 젊은 여종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합니다. 사래가 자식 낳기는 너무 늙었다고 판단한 대안이지만, 하나님은 바로 아브람과 사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이 주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이 빌 게이츠 정도로 만족할만한 재산 주시려는 게 아닙니다. 아브람이 온 세상을 소유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과 더불어 뭔가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는데, 아브람의 비전이 너무 작습니다. 우린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 소박한 비전을 세워놓고, 거기 만족하지는 않습니까? ‘목사님, 구원은 놔두고, 지금 복이나 받게 해 주세요.’ 심심찮게 듣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위대한 일을 일으키실 수 있다는 사실을 못 믿겠으니까, 좀더 수월한 대안을 택하지는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 진정한 소명은 아닙니다. 보다 큰 걸 바라는 게 겁이 나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위대한 일 이루시는 걸 보기 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위대한 일 이뤄달라 기도합니까? 아님 그저 이 정도로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이 극적인 일을 이루시는 걸 바라지 않는 건 아닙니까?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런 건 너무 불가능해 보이니'까 말입니다.

아브람은 자기 희생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위대함에 이르는 길로 떠납니다.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 약속을 이루는데 쓰실 사람은, 그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먼저 떠나야 합니다. 사실 창세기 중심 인물이 아브람, 야곱, 요셉인데, 셋 다 떠났습니다. 아브람도 친숙한 고향, 먹고 살 길이 분명한 땅, 바람막이가 되어줄 친구와 친척들을 떠났습니다. 우르와 하란은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의 삼대 도시중 둘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 사는 지금의 LA 나 뉴욕같은 곳입니다. 아브람은 그 모든 걸 뒤로 하고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한 것도 아닙니다. 12:1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라고만 하시지, 목적지가 없습니다. 목적지가 침부터 분명했으면 아브람에게 좋을까요? 갈 곳이 분명하니까 좋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약탈과 침략이 빈번해 경계선조차 분명치 않은, 값어치 없는 땅을 좋아했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아브람은 떠났습니다. 아브람이 떠난 것처럼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도 떠나야합니다.

아브람이 두고 떠난 친척과 아비의 집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뭘니까? 본토는 히브리어로 그냥 '땅'입니다. 당시 땅은 부의 척도입니다. 그런데 떠나려면, 땅을 짊어지고는 못 떠납니다. 성도는 세상적인 삶의 원리인, 물질주의를 떠나야 한단 말씀입니다. 물질이 아무리 필요해도, 물질은 한시적이고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나은 '믿음의 땅'이 있다는 걸 알게 하시고, 히 11:8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을 향해' 떠나게 하셨으면, 물질주의를 떠나야 합니다.

그게 자기 삶을 지켜주고 장래를 보장할 걸로 아니까, 물질에 매입니다. '이거 없이 어떻게 살지' 하면, 절대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고, 더 필요한 사람을 도울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아브람은 떠나서 천막 속에서 삽니다. 히 11:9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우리도 이 땅을 언제든지 걷고 떠나야 할, 장막으로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정말 믿음으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사는 겁니다. 썩은 과일 들고 애지중지하는 사람은, 절대 싱싱한 과일 맛 볼 수 없습니다. 마 13:44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쓰라고 주셨는데 물질의 노예로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는한에는 절대 이제 막 나무에서 따서 싱싱한 과일처럼, 하나님이 직접 공급하신 걸 맛볼 수 없습니다.

1 절 '가라'는 명령은 히브리어로 칼동사이고, 계속되는 명령입니다. 한번 떠났으면 된 게 아닙니다. 계속 떠나야 합니다. 성도는 한번 믿고 마는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계속 믿으면서, 믿음의 길 가는 겁니다. 가다 멈추거나, 뒤로 돌아설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마라톤입니다. 도중에 쉬었다, 다시 달릴 수 없습니다. 그랫다간 눅 17:32 '룻의 처를 생각하라.' 떠나온 소돔과 고모라 돌아 보다, 소금기둥이 되고 맙니다.

아브람이 하나님 명령을 받은 게 행 7:2 절, 메소포타미아 즉 갈대아 우르가 분명한데, 왜 도중에 하란에 머물렀습니까?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하란에 머물지 않았습니까? '타락한 도시 문명을 떠나, 이만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나 아브람에게는 하란이 목적지가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이만하면 됐지' 하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새로 오신 분들보다, 오래된 분들에게 그런 현상을 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머문 채, '이만하면 됐지 뭘 더' 하는 분들 착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흐르는 불에 그냥 떠 있는 물고기는, 흘러가는 것이지 현상유지도 못됩니다. '이만하면 됐다'는 유혹에서 벗어나, 여러분의 하란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란에 주저 앉았다가는, 영생과 이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다, 결국은 세상 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관원이 받은 테스트 보십시오. 테스트가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재물과 영생 사이에서 고민하다, mammon과 하나님 사이에서 결국 mammon을 택하고 맙니다. 보화가 감추인 밭을 산 사람과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눅 14:33 에도 "너희 중의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유를 목적으로 삼지 말아라. 그래서 절대 내 제자 못된다. 세상은 힘이 소유에서 나온다고 속삭일 때, 아니다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헌금도 내 소유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단 고백도 되지만, 사실 '버리는' 연습입니다. 얼마만큼 내 가진 걸 소개와 같이 버릴 수 있는 건 겁니다. 부자가 재물 의지하는 것과, 가난하다고 기죽는 건 똑같이 나쁩니다. 불편할 뿐 내가 성실치 못한 결과면 고치면 되지, 기죽는 건 재물의 노예란 말입니다.

아브람이 떠나야 했던 '친척과 아비의 집'은 자기를 지켜주는 울타리였습니다. '네 아성 쌓고 그 속에 들어가 그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에게 가장 역정을 내십니까? 남쪽 애굽이 강할 때는 남쪽으로, 북쪽 앗수르가 강할 때는 북쪽으로, 하나님보다 외교관계 인간관계를 더 의지할 때 아닙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배와 그물'뿐 아니라, 아버지도 버려두고 떠나야 했습니다. 그 말이 효도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배와 그물이란 물질이 주는 보장과 함께, '아버지'라는 바람막이 의지해서는 주님 따를 수 없단 말입니다.

이 시간 주님이 말하십니다. "너는 지금 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다. 내가 원하는 축복의 자리가 아니다. 지금 일어나거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여태 누리던

기득권, 편안하게 앉았던 그 자리 박차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비전보다 훨씬 더 크고 영광스러운 생애를 펼쳐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니 정리하십시오. 바리바리 싸들곤 못 떠납니다. 히브리서 12 장 믿음의 경주는 어떻게 합니까? 히 12:1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분명 버리지 않으면 경주 못합니다. 먼저 죄를 버리십시오. 근심 걱정도 함께 버리십시오. 그리고 떠나십시오. 떠날 때 아브람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자기가 동행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 알았던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즐기십시오. 어떤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을 주십니다. 아브람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람이 믿은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십시오. 그 분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 분이 함께 하시는 게 성공, 그 분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실패입니다.

아브람도 우리처럼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우리도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여기 네가 살아야 할 자리라 여기는 본토 아비 집을 보느냐?” “그 습관, 그 기득권, 그 편안한 자리 하나님이 지시한 자리가 아니면, 일어나라. 믿음으로 일어나 짐 정리하고 나와 함께 떠나자.”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그 땅에 도달할 줄 믿습니다. 가는 모든 여정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떠나십시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